한국에이즈예방재단 창립총회에서 발기인 대표들이 에이즈예방기금 모금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의 레드리본을 클릭하고 있다. 좌로부터 신상진 대한의사협회장, 이승우 한국 MSD 사장, 권이혁 성균관대 이사장, 김상인 한국건강관리협회장, 패티김 에이즈예방 홍보대사, 정광모 한국에이즈예방재단 총재, 최영희 국회의원.

'자랑스런 가톨릭의대인' 봉사상에 선우경식 원장

가톨릭의대 동창회는 '올해의 자랑스러운 가톨릭의대인'으로 학술상에 천병훈(18회 · 가톨릭의대 해부학교실), 주친기(22회 · 강남성모병원 안과학) 교수를, 봉사상에 선우경식(10회 · 요셉의원)원장을 각각 선정했다.

시상식은 24일 개최되는 가톨릭의대인의 밤 행사 석상에서 열렸다. 이 상은 올해 처음 수여되는 것으로 11월 9일 추천 마감후 13일 김광태 동창회장과 최창락 의무부총장을 비롯한 총 8명의 원내외 선정위원이 수상자를 선정했다. (의협신보 11월 26일)

에이즈 예방과 퇴치 사업에 적극 후원 (6면에서 계속)

정광모 총재는 "이제 모두가 참여하여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시점에 달했으며 이에 본 재단을 설립하게 되었다"고 창립 취지를 밝혔다.

대통령 영부인 이희호 여사는 "'한국에이즈예방재단'은 우리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있는 밝판을 마련할 것이라 믿는다"고 격려했다. 한국에이즈예방 재단은 에이즈 예방과 퇴치를 위하여 에이즈 감염인 및 가족의 복지사업, 에이즈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사업, 에이즈 예방을 위한 계몽 및 홍보, 에이즈 예방을 위한 교육훈련, 에이즈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에이즈에 관한 국제협력 사업, 기타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등이 더욱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창립총회와 함께 한국에이즈예방재단과 동아일보가 공동 주관하고, 한국엔에스디주식회사와 인터넷 사이트 네띠앙이 후원하는 'AIDSFREEKOREA' 캠페인과 레드리본 클럭행사를 함께 벌였다.

아 · 태지역 적십자사 에이즈 감염인 차별방지 만화경연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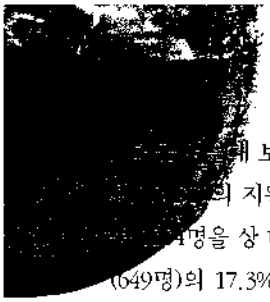
충남 예산고등학교 3학년 손한민 군이 국제적십자사연맹 아시아대표부에서 개최하는 제1회 아 · 태 지역 적십자사 에이즈 차별방지 만화경연대회 중고등부 1등을 수상했다.

청소년들에게 에이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에이즈 감염인 및 가족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가짐으로써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이 만화경연대회는 국내에서 경연대회를 거쳐 출품한 3점 등, 15개국 67편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된 제6차 아 · 태 지역 에이즈 회의에 참가한 참가자들의 투표에 의해 중고등부, 대학부로 나뉘어 선정했다.

수상작품은 오는 12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되는 세계 에이즈 감염인 가정간호 회의에 전시되었고, 홍보물로 제작되어 전 세계에 배포할 예정이다.

외국인 에이즈 환자비상-외국인과 성접촉 감염 25%

많은 전문가들이 검진조차 받지 않은 외국인 에이즈 환자와 에이즈 판정 후 잠적한 이들이 우리 사회에 그대로 방치됨으로써 '외국인 남성→국내 매춘여성→내국인 남성→내국인 여성'과 같은 '에이즈 확산 메커니즘'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해 보건대학원 김정순 교수 등이 유엔개발계
의 지원하에 국내 기주 조선족과 한족, 몽골인
명을 상 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대상 남성
(649명)의 17.3%(112명) 는 매춘여성을 통해 성욕을 해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33.9%(220명)는 이성친구를 통해 해소한다고 대답, 배우자가 아닌 이성을 통해 성욕을 해소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내국인 통계에서도 9월말 현재 1515명에 달하는 에이즈 환자 중 국외 이성과의 성접촉에 의한 감염자가 323명(25.3%)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성접촉에 의한 감염자수(1233명)의 26.2% 에 해당한다.

(문화일보 2001년 11월30일)

효과적인 에이즈 관리와 교육을 위한 워크샵 개최

효과적인 에이즈 관리 및 교육을 위한 워크샵이 11월 8, 9일 개최됐다.

대한에이즈예방협회는 11월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대전 호텔래전드에서 대전을 비롯한 충청도 지역 에이즈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에이즈 관리와 교육을 위한 워크샵을 실시했다.

최강원 서울대 의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이 행사는 정부의 에이즈관리 정책(이종구 국립보건원 방역과장)과 에이즈의 최신 동향(최강원 서울대 의대 교수) 등의 강의, 진단과 검사전후 상담 실제사례 소개(성영란 서울시 광진구보건소 간호사), 각 지역별 사례발표와 향후 효과적인 예방교육 방향과 감염자 관리 등을 주제로 한 그룹토의, '레드리본' 비디오 시청에 이어 초청특강(오완호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으로 이어졌다.

심영보 대전 공중위생담당 사무관, 이재훈 충남 보건사무관 등 총 57명이 참가한 워크샵을 계기로 대전, 충청지역의 보다 활발한 에이즈 예방 관리 활동이 기대된다.

세계인의 에이즈 위험 인식도에 대한 여론조사

전 세계 성인들의 절반 가량은 평소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에이즈에 대한 공포가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이해 미국의 콘돔 제조회사인 듀렉스사는 에이즈에 대한 인식과 성생활에 대해 세계 28개국의 16~55세 1만8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전 세계 응답자의 과반수인 54%가 평소 에이즈 감염의 위험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에이즈에 대한 우려는 연령별로 16~20세(65%)에서 가장 높았고, 45세 이상(44%)에서 제일 낮았다. '성생활에서 에이즈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비를 하고 있는가' 란 질문에는 '대비하고 있다' (62%)는 응답이 '대비하고 있지 않다' (38%)보다 높았다. (조선일보 12월 10일)

호주, 사람 대상 새 에이즈 백신 실험

호주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바이러스에서 추출한 DNA를 사람에게 투입, 새로운 에이즈 백신에 대한 임상실험을 실시할계획이라고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1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에이즈 바이러스 추출 DNA를 주사할 경우 원숭이 실험에서 입증된 것처럼 면역시스템을 자극해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세포를 추적, 파괴할 수 있는 백혈구(킬러 T세포)를 만들 수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간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한다고 전했다. 전국 주요 대학 연구원들로 구성된 이번 에이즈 백신 실험팀은 신체건강한 40여명의 지원자를 모집, 내년 8월께 본격적인 실험에 들어간다.

연구팀은 새로운 백신이 면역체계를 자극하는 것이 입증될 경우 인체 감염 방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에이즈 위험이 높은 아시아 지역에서 사람에 대한 임상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12월 11일)

서울특별시 대상 워크샵 실시

대한에이즈예방협회는 11월 15, 16일 양일간 청풍리조트에서 서울특별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에이즈 관리 및 예방을 위한 워크샵을 실시했다.

워크샵은 에이즈의 동향(서울중앙병원 김남중 교수), 에이즈 감염인의 일상생활(작은빛 공동체 고미리암 수녀), 에이즈 환자를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수원 권선구 보건소 이애숙 예방의약담당), 에이즈 감염인의 심리상담(연세대 장순복 교수) 등의 강연과 그룹토의로 진행되었다.

이영해 서울시회 회장과 이창우 사무국장, 서울시장 표창 받아

대한에이즈예방협회의 이영해 서울특별시회 회장과 이창우 사무국장이 12월 26일 고건 서울시장으로부터 에이즈 예방과 홍보에 관련한 우수한 활동으로 표창을 받았다.

고건 시장은 이 회장과 이 사무국장의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한 점을 높이 사 이에 표창한다고 밝혔다.

남아공, 산모 AIDS약 공급

남아프리카공화국 고등법원은 공공 병원에서 출산하는 모든 여성에게 정부가 에이즈 치료제를 공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에이즈 퇴치 운동가들과 의사들이 남아공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정부는 공공 병원에서 출산하는 여성 모두에게 에이즈 치료제인 네비라파인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모와 아이가 네비라파인을 복용할 경우 에이즈 감염률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아공에서는 매년 7만에서 10만 명이 새로 에이즈에 감염되고 있으며 전체 인구 10명중 한 명이 에이즈 환자이다. (YTN, 12월15일)

말련, 성폭행 피해자에 에이즈 예방약

말레이시아는 성폭행 피해 여성에게 에이즈 감염을 막기 위해 에이즈 예방약을 지급할 계획이다.

말레이시아 에이즈 위원회의 다틴 파두카 회장은 구체적인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강간범이 성폭행 대상 여성에게 에이즈를 전염시킨 사례가 많다면서 이들에게 에이즈 예방약을 지급하게 되면 에이즈 바이러스인 HIV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말레이시아 선문 스타가 30일 전했다.

다틴 회장은 성폭행 피해 여성에게 에이즈 예방약을 지급하는 나라들이 있다고지적하고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계획을 곧 시행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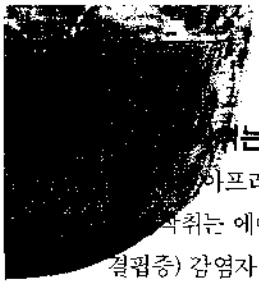
말레이시아에서는 야당인 범 말레이시아 이슬람당이 통치권을 장악하고 있는 조호르주 지방정부가 이달초 이슬람 신도에 대해 결혼하기 전 에이즈 감염여부 검사를 의무화해 논란을 빚었다. (연합뉴스 11월30일)

세계은행, 아프리카에 에이즈 자금 5억달러 제공 계획

세계은행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HIV/AIDS에 대처하기 위해 5억달러를 제공할 것이라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세계은행의 이사회에서 곧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자금은 세계은행의 HIV/AIDS 프로그램에 신청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저리 차관의 형태로 배분될 것이라고 세계은행 관계자인 데브레워크 주디가 로이터 기자에게 말했다.

세계은행과 유엔 에이즈기구(UNAIDS)는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기본적인 에이즈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매년 30억달러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로이터 11월28일)



…는 에이즈 확산과 연관" [UNICEF]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아동에 대…취는 에이즈바이러스(HIV)와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 확산과 명백한 연관이 있다고 캐롤 벨라미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 사무총장이 경고했다.

벨라미 사무총장은 매년 100만명으로 추산되는 아동이 성매매에 희생되고 있으며 이들은 HIV와 에이즈 감염에 노출돼있는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고 지적하면서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에이즈가 만연된 일부 지역에서는 10대 소녀가 청소년에 비해 에이즈 감염률이5-6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유니세프는 전했다. 전세계적으로 15-24세의 남.여 1천300만명이 HIV와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매일 7천명 이상이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11월 28일)

UNAIDS "올 에이즈사망자 300만명"

올해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로 인한 사망자는 약 3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유엔에이즈퇴치계획(UNAIDS)이 밝혔다.

UNAIDS는 보고서에서 에이즈 감염자 중 15세 미만의 아동이 58만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인 사망자 240만명 중 110만명이 여성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한 올해에 에이즈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람은 15세 미만 아동 80만명과 성인 여성 180만명을 포함해 5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전세계적으로 에이즈와 HIV 감염자는 4000만명에 달하며 이중 15세 미만 아동은 270만명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UNAIDS는 에이즈가 발견된 뒤 20년에 걸쳐 6000만명 이상이 감염됐으며 현재 HIV와 에이즈 감염자의 약 3분의 1이 15~24세의 젊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젊은 여성이 에이즈에 취약한 계층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11월 29일)

캄보디아, "콘돔" 카페 문 열어…젊은이들 대상으로 에이즈 교육

아시아 지역에서 에이즈 감염률이 가장 높은 국가 가운데 하나인 캄보디아에 10일 "콘돔" 카페가 문을 열었다. 저렴한 가격에 음식과 커피 등을 판매하는 이 카페에서는 손님들에게 콘돔을 무료로 나누어 주는 것은 물론 각종 성병 예방을 위한 조언들도 해 주게 된다.

카페 운영과 함께 부랑아를 돌보는 일을 맡고 있는 단체 "프렌즈/미스 삼란(Friends/Mith Samlanh)"의 구스타프 오에르는 "(카페를 연) 목적은 부랑아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이 카페는 그들이 에이즈의 위험에 대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로이터에 밝혔다.

유엔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캄보디아 전체 인구 1천100만명 가운데 2.8%가 에이즈 혹은 HIV에 감염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그간 에이즈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3만3천 여명에 달한다.

캄보디아 사회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카트 소파는 그러나 많은 캄보디아 젊은이들이 여전히 성(性)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쑥쓰러워 한다고 지적하고 "에이즈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더 이상 부끄러워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로이터인터넷 12월 10일)

여러분의 후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2001년 11-12월)

강연황	10,000	금검우	10,000	양기열	10,000
김의석	100,000	김갑현	10,000	여태근	10,000
김정실	30,000	김길헌	10,000	오은주	10,000
김호윤	10,000	김상길	10,000	위성교	10,000
남효숙	50,000	김영민	10,000	윤재학	10,000
박소현	10,000	김영희	10,000	윤종하	10,000
박인달	10,000	김용섭	10,000	이성님	10,000
신영단	10,000	김재익	10,000	이재영	10,000
양옥자	10,000	김정희	10,000	이재웅	10,000
오태준	10,000	김춘동	10,000	이지연	10,000
원영호	50,000	김춘석	10,000	이해순	10,000
유금숙	20,000	김택곤	10,000	이험기	10,000
윤성현	5,000	김형모	10,000	임 철	10,000
이미영	30,000	김형섭	10,000	장기수	10,000
이성민	20,000	김홍우	10,000	장성균	10,000
임수미	10,000	나병호	10,000	정천우	10,000
정순영	20,000	박상용	10,000	정기중	10,000
최정숙	10,000	박양순	10,000	조광현	10,000
한부여	10,000	박종규	10,000	조태호	10,000
함유식	20,000	박채옥	10,000	주광수	10,000
		박후세	10,000	최봉익	10,000
(부산)		박홍균	10,000	최석중	10,000
박원주	610,000	백명인	10,000	최준후	10,000
		백수선	10,000	하승문	10,000
(광주)		서상희	10,000	한정식	10,000
강동구	10,000	송시열	10,000	함용선	10,000
강석현	10,000	송춘현	10,000		
권병석	10,000	신동수	10,000		
권현진	10,000	안기석	10,000		